

'완전체 출격' 광주도시공사...연승 행진 이어간다



오늘 경남개발공사와 격돌...1라운드 패배 설욕 다짐
원선필 등 부상 선수 합류에 끈끈한 팀워크 발휘 기대

'디펜딩 챔피언' 삼척시청을 제치고 5위로 올라선 광주도시공사가 경남개발공사를 만나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도시공사는 31일 오후 6시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2023-2024 핸드볼 H리그 여자부 2라운드 경남개발공사와 격돌한다. 특히 이번 경기는 광주도시공사의 부상선수들이 재활을 마치고 합류해 펼쳐는 첫 경기다. 지난 경기 11명에서 이번엔 13명이 함께하는 만큼, 더욱 끈끈해진 팀워크를 기반으로 보다 더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7일 삼척시청과의 대결에서 30-27로 승리하며 분위기가 살아났다. 도시공사는 현재 3승 1무 4패, 승점 7점을 기록하며 전체 8팀 중 5위다. 삼척시청전에서 서아루가 11골을 넣으며 활약했고, 김지현은 9골에 8도움을 기록했다.

오세일 감독은 "선수들이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5연승을 달리고 있는 경남개발공사는 7승 1패, 승점 14점으로 2위다. 1위 SK슈가글라이더즈와는 2점 차이다.

광주도시공사와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25일 펼쳤

던 1라운드 경기에서는 광주도시공사가 20-28로 패했다. 두 팀은 1라운드 대결 이후 6일 만에 다시 만난다.

이번 경기는 부상으로 재활 중에 있던 원선필, 정현희가 들어와 힘을 더한다.

지난 28일부터 팀에 합류한 원선필과 정현희는 이틀간 훈련에 몰입해 몸을 풀었다. 두 선수가 돌아오면서 도시공사는 더욱 강해진 팀워크를 선보일 계획이다.

오세일 감독은 "부상선수들이 합류하면서 분위기도 더 좋아진 것 같다. 정현희 선수가 있었던 자리가 비면서 볼이 잘 안 돌아갔던 부분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수비 쪽에서는 원선필 선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들어오면서 옆에 다른 선수들도 안정을 찾는 것 같고 팀 수비 면에서 훨씬 나아질 것 같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도시공사는 부상선수들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4 새로운 영입선수 시미즈 아이카는 대학 논문 심사 일정으로 일본에 머물고 있어 지난 삼척시청전에 이어 이번 경기까지 출전하지 않는다. 아이카는 2월 2일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선수들이 지난 27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삼척시청과의 경기에서 승리한 후 기뻐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상승세' 안병훈, PGA 특급대회 정상 도전

AT&T 페블비치 프로암
김주형·임성재 등도 출전

시즌 초반이지만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한국 선수 가운데 '에이스'는 안병훈(사진)이다.

시즌 개막전과 두 번째 대회에서 4위-준우승이라는 빼어난 성과를 거뒀다.

두 번째 대회 소니오픈에서는 연장전에서 아깝게 졌지만, 우승하고도 남을 경기력을 보였다.

거리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데 안정감이 떨어졌던 드라이버 샷이 잡힌 데다 가장 큰 약점인 퍼팅이 좋아지면서 경기력이 몰라보게 향상됐다.

그는 드라이버 효율성 지수 1위에 전체 이득 타수 부문 6위에 올라가 있다. 샷을 정확하게 멀리 친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제는 PGA 투어에서 퍼팅이 뛰어난 선수로 꼽힌다.

라운드당 퍼트 개수(27.75개)는 9위, 정규 타수 만에 그린에 볼을 올렸을 때 평균 퍼트 개수(1.688개)는 10위다.

라운드당 평균 버디 개수 5위(6.13개), 평균타수 7위(69.099타)가 말해주듯 안병훈은 현재 PGA투어에서 가장 빼어난 경기력을 지녔다.

안병훈은 현재 PGA 투어 페덱스컵 랭킹 3위다. 4명의 우승자 가운데 2명만 안병훈을 앞섰다.

아직 PGA 투어에서 우승 포포를 뜨지 못한 안병훈으로서 이런 기세를 우승으로 이어가야 한다.

안병훈은 다음 달 2일부터 나올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에서 열리는 AT&T 페블비치 프로암(총상금 2천만 달러)에 나선다.

이 대회는 올해부터 특급 지정 대회로 승격됐다. 우승 상금이 무려 360만 달러(약 48억원)에 이른다.

80명만 출전해서 컷 없이 치른다. 풀짜인 80위도 3만2000달러(4257만원)의 상금을 받아 가는 돈잔치다.

김주형, 임성재, 김시우, 그리고 행운의 출전권을 잡은 김성현이 안병훈과 함께 출전한다.

특급 지정 대회인 만큼 내로라하는 선수들 다 출



전한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 스코트 셰플러(미국)다.

둘 다 페블비치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특급 지정 대회 승격과 함께 출사표를 냈다.

매길로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두바이에서 두차례 대회를 치러 우승과 준우승한 번씩 차지한 매길로이는 이번이 올해 첫 PGA 투어 대회 출전이다.

세계랭킹 1위 셰플러는 아예 프로 선수가 된 이후 처음 이 대회에 출전한다. 2019년 페블비치에서 열린 US오픈에서 컷 탈락한 아픔이 있다.

세계랭킹 4위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은 2018년 페블비치에서 열린 US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이듬해 이곳에서 치러진 US오픈에서 공동 12위에 올랐다.

33년 만에 PGA 투어 아마추어 우승자로 큰 주목을 받은 대학생 닉 넬슨(미국)은 이 대회를 프로 선수 데뷔전 무대로 선택했다.

/연합뉴스

신운선·이영건, UIAA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메달

리드부문 금·동메달 획득

아이스클라이밍 국제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사스페에서 진행된 UIAA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리드 부문에서 신운선(서울 노스페이스클라이밍)이 여자부 금메달을, 이영건(전남향군산악회)은 남자부 동메달을 획득했다.

두 선수는 모두 지난달 열린 청송 월드컵에서 리드 부문 메달을 따내며 활약했다. 신운선은 청송 월드컵에서 여자부 리드 1위, 이영건은 남자부 리드 2위를 기록했다.

신운선은 이번 우승으로 여자부에서 월드컵 두 대회 모두 금메달을 딴 유일한 선수가 됐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 유일하게 사스페 루트 정상에 오른 선수이기도 하다.

이영건은 남자부 리드 부문에서 28.0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1위는 30.0을 기록한 드방 비에지유(Devin Virgile·프랑스)가 차지했고, 2위에는 28.0을 기록한 트리스탄 라드방트(Ladavent Tristan·프랑스)가 올랐다.

한편, 오는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챔피언십이 열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이영건이 지난 25~27일 스위스 사스페에서 열린 UIAA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리드 남자부 경기를 펼치고 있다.

<UIAA 제공>

위성우 우리은행 감독, 여자농구 최초 300승 달성 축하 행사

2월 3일 헌정 영상 상영 등

여자프로농구(WKBL) 위성우 아산 우리은행 감독의 WKBL 역대 최초 300승 달성을 축하하는 행사가 2월 3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우리은행과 부산 BNK 경기에 앞서 열린다.

경기 전 위성우 감독의 300승 달성 헌정 영상이 상영되며, 우리은행 구단은 숫자 300이 새겨진 순금 기념패를 위 감독에게 전달한다.

우리은행 선수들은 300승 달성을 축하하는 '이벤트 유니폼'을 입고 경기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영카
2관	시민덕희
3관	위시
4관	시민덕희
5관	영카
6관	영카, 신차원! 짱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날아라 수제김밥~
9관	외계+인 2부
7관 씨네마	서울의 봄, 길위에 김대중
8관 씨네마	노랑: 죽음의 바다, 길위에 김대중, 아틀 새로운 시작, 신차원! 짱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날아라 수제김밥~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퀴리
일시 :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 18: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정승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